

제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6. 3. 28(월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성래, 박춘호, 양찬제, 윤현옥, 변태순
이은형, 이혜경, 이혜선, 임영희, 전항섭, 홍혜옥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8건 10작품(조각 9, 회화1)
[신규 8건, 재심 2건]
- ◆ 결 과 : 승인 7작품, 부결 3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금일 심사위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. 그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그럼 개별 채점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요즘 통돌로 조각이 가능한가요?
-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작품의 크기를 보면, 측면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- 12페이지 제작 및 시공방법을 보면 이렇게 큰 크기를 통돌로 하기는 좀 어려울듯하고, 시공을 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
- 시공방법을 보면 수직구조와 수평구조가 각각 나뉘어 저서 에폭시로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.
- 이게 통돌이 아니라 프레임을 세워서 붙인 것 같습니다. 상세도를 보면 이어서 붙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.
- 스테인리스 구조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나요?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행자의 머리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
- 보행자가 들어가기 쉬운 부분은 아니라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.
- 스텐으로 만든 구조물이 1m이상 올라가 있어서 부딪힐만한 높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또한, 스테인리스를 매끈하게 가공을 한 것이어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
- 상세도를 보면 30T판재로 보이는데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
- 도면상으로 보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고정 부위가 몇 개나 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- 나뭇가지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는 건가요? 판재를 겹겹

이 붙었는지, 통돌을 깎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

- 첫 번째 파란색으로 표기되어있는 프레임부분은 판석으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나뭇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
- 일반적인 조각에서는 이런 구조로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깎아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 겹부분은 판석으로 하고, 안쪽 나뭇가지 부분들은 통돌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접합부가 얼마나 견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.
-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도 판재 사이는 보일 것 같습니다.
- 전반적으로 도면에서 구조적 안정성,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통과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조건부가 붙어야 할 듯 합니다.
- 그럼 1-2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창작비에 대해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?
- 현재 전체 금액의 20%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.
- 개인적으로 1-2번작품은 창의성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
- 작가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작가의 예술정보다도 27페이지 제작 및 시공방법을 보시면 나무 윗부분의 접합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상세히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. 혹시라도 판재라면 접합부들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위에 부분이 어떻게 제작되는지, 접합부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제작할 수 있는지, 통행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통행문제는 잔디받이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통행

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접합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. 다만 도면대로 만들어 질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할 듯합니다.

- 작품성 부분에서는 어떤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 다른 의견 없으시면 1-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색이 화려한 작품인데 작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나요?
- 색채가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이미지가 너무 상투적입니다. 왜 이러한 작품이 아파트 안에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.
- 쉽고 재밌는 작품의 설치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
- 서울시에 큰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리석이나 회색빛돌이 많습니다. 개인적으로 건물들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만약 사는 아파트에 이런 작품이 들어왔다고 상상했을 때 찬반양론이 심할 것 같습니다. 또한, 작품에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림 같은 부분에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스테인리스는 강성이 좋은 재료라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앞의 두 작품은 설치될 만하다고 느끼지만 이 작품은 앞 작품하고도 안 맞고 색깔자체가 튀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조경에서는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.
- 이 작품을 보고 인사동에 있는 상징조형물이 떠오릅니다.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작품들을 세워야하는지 의문도 듭니다. 앞의 두 작품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3번째 작품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
-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.
- 2번 작품부터는 공모작입니다. 2번 작품에 대해서는 영화제작

사의 로고와 비슷하다 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

- 2번 작품에서부터 5번 작품까지는 공모작입니다.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모작에 대한 가산점 10점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가산점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모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그 동안의 관례상 가산점을 주되 나머지의 점수로 각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- SH공사에서 공모된 작품은 모두 작품가액이 좀 낮습니다.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공모라는 것이 좋은 작품을 위해 한번 걸러서 오는 것이라서 가점을 일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점을 주는 대신 표절 같은 문제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게 해서 떨어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그럼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. 다수결에 의해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무조건 모방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각도로도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처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배우는데 이 정도에서는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될 듯합니다.
- 낚시하는 소년이 없다면 괜찮은데 이 낚시하는 소년이 너무 영화제작사 로고와 같은 것 같습니다.
- 표절이라는 측면에서는 형태가 원작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

한 문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작품들이 서로간의 유사성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- 표절을 했는지 차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작가가 영향을 받은 작품에 대해 사전에 밝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- 낚시하는 소년에서 표절문제보다 소년이 들고 있는 낚시대가 위험해 보입니다. 또한, 앞에 있는 별의 모서리 부분들이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.
- 낚시대 부분은 안전할 것 같지만, 별의 모서리 부분들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- 다음 3번 작품입니다. 검토해 주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.
- 조형성이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작품설명을 보고 이 작품을 작품설명대로 이해하는 주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
- 좌대에 해당되는 부분도 높이에 포함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좌대도 작품에 포함시켜 작품에 대해 연관된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다들 3천만원대인 것 같습니다.
- 이 가액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안전상에 문제, 작품 유지에 대한 문제,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해서 작가들이 보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가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미술관에서 한번만 작품이 전시되고 철거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작품은 아파트가 있는 동안은 계속 세워져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- 법으로 정해진 법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
- 다른 해법이 없다면 반드시 세워야겠지만 기금출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미적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 양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.
- 그럼 각자 의견을 반영하셔서 채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옥외 광고물 수준의 색채인 것 같습니다.
- 외부에 6각형형태로 조각을 연결하는데 결면이 곡면이라 뜨거나 하지 않을까요? 용접처리로 가능할까요?
- 가능한 작업입니다.
- 위의 나비도 괜찮을까요?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- 작가경력을 보니 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의 작품에 당선 많이 된 것 같습니다.
- 심사를 들어가면 보통 당선되는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.
- 작품을 보시고 점수로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. 제 의견으로는 SH나 LH에서 하는 작품들은 예술성을 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작가 중 아니쉬카푸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. 작품에 굴곡을 주는 방식이 이 작가와 비슷합니다. 아까 전 작품보다 이 작품이 더 표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

- 의견에 동의합니다. 이 작품이 오히려 더 표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앞의 낚시하는 소년은 자세라도 변형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너무 동일한 작품 같습니다.
-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생명-비전입니다. 안전성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작품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.
- 작품가액에 비해 작품의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. 기법 측면이나 복잡한 형태도 아닌데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.
- 설치비도 2천만원인데 작가 창작비가 1,200만원으로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.
- 정말 무난하게 건축주가 좋아할 만한 작품입니다.
-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회화작품이고 채심작품입니다.
- 작가가 바뀐 겁니까?
- 네. 작가가 바뀌었습니다.
- 밝고 화사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툃이나 채도 등이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.
- 회화작품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병원로비에 들어갈 작품으로는 무난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
- 개인적으로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이 들어올 것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작가가 바뀌어서 들어와서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지금 작품이 너무 무난한 것 같습니다.
- 병원은 맞지만 용도는 실험실과 연구실이고 환자 병실은 따로 없어서 이런 작품도 무난할 듯합니다.
- 그냥 벽지와 같은 좀 비싼 마감이라고 봅니다.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듯합니다.

- 다음 작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.
- 이 작가의 작품은 유사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작품이 심의에 통과 시켜도 되는 지 의문입니다.
- 네 동감입니다.
- 위치가 사람들 모여서 흡연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애매한 장소같습니다.
- 사실 위치는 이미 정해져있어서 바꾸기는 힘들 듯 합니다.
-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자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0개 작품 중 1-3번과 5번, 8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 하셨습니다.